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0년 9월 15일(수)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속 한국의 성별영향평가, 그 성과와 과제를 짚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글로벌 시대의 성별영향평가, 어디까지 왔나」 주제로 국제심포지엄 개최
- 국제 성별영향평가 실행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성과와 대안 마련 논의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주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0년 9월 15일(수)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여성정책 전문 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2010년 9월 30일 목요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글로벌 시대의 성별영향평가,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성 주류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성 주류화 국제심포지엄]

글로벌 시대의 성별영향평가, 어디까지 왔나

- 일시 : 2010. 9. 30. (목) 13:30 ~ 17:00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 회의장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관 : 본원 성별영향평가센터
- 후원 : 여성가족부

※ **해외초청 발제자 미디어 취재 지원 안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 참석차 내한하는 초청자들과의 인터뷰를 주선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내한 초청자들과의 인터뷰를 원하시는 매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애리에게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정은 홍보담당자와 상의하여 조정 바랍니다.

홍보담당 황애리(3156-7296)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2010년 9월 30일 목요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글로벌 시대의 성별영향평가,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성 주류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

- + 성별통계 등 객관적 자료와 정책 고객의 요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
- + 정책의 시행 또는 폐지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 + 궁극적으로는 해당 정책을 양성평등한 효과를 가지는 정책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도구

- 이번 심포지엄은 작년에 열린 제2차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의 후속회의로서, 성별영향평가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요 국가의 사례를 통해 여성정책과 글로벌 페미니즘의 성 주류화 전략의 성과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성 주류화

및 성별영향평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크게 3 발표로 나뉘어 진행된다.
 - 제 1 발표는 Helen Dwyer-Renaud 캐나다 여성지위청 수석고문이 “캐나다 성 분석의 추진체계”를 주제로,
 - 제 2 발표는 Judith Squires 영국 브리스톨 대학 교수가 “영국의 성 주류화 실행과 성과”를 주제로,
 - 제 3 발표는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의 성별영향평가와 젠더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주제 발표 후에는 허라금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이재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성별영향평가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캐나다, 한국, 영국 등의 추진사례를 살펴보고, 지난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라고 설명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제도운영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나누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성별영향평가의 도약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8년도부터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성 주류화 관련제도들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3개년도 연구 사업을 수행중이다. 2010년에도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 * 별첨 1. 발제자 프로필
- 별첨 2. 발표 초록
- 별첨 3. 프로그램순서
- 별첨 4. 발표자료 전문

별첨 1. 발제자 프로필

1. Helen Dwyer-Renaud

현재 캐나다 여성지위청의 수석고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1999년 캐나다 성분석의 초대 국장으로 위촉되어, 2010년까지 캐나다 성분석국 국장직을 연임하며 캐나다 성분석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Hélène Dwyer-Renaud은 캐나다의 여성 및 양성평등 관련 분야에서 30년 이상 종사하며, 정책 분석 및 발전, 연구, 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성평등과 관련한 캐나다 주요 정부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 Judith Squires

University of Bristol에서 선임교수를 거쳐, 현재 정치학부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The New Politics of Gender Equality(2007)와 Gender in Political Theory(1999) 및 "Is Mainstreaming Transformative? Theorising Mainstreaming in the Context of Diversity and Deliberation" 등 성 주류화 분야의 이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Academy of Social Science(AcSS)에서 학술위원, Gender and Politics Book Series에서 공동편집인, Government and Opposition에서 편집인으로 활동하는 등 왕성한 학술활동으로 성 주류화 및 여성학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3. 김경희(Kyung-Hee Kim, 한국)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국회에서 입법정보연구관(여성담당) 및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일한 경험이 있다. 여성부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 위원,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 「여성연구」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관심분야는 성별영향평가, 적극적 조치, 성 주류화, 지역발전정책과 여성 등이다. 현재 수행중인 연구로는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 및 성별영향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2. 발표 초록

제1발표

캐나다 성 분석의 추진체계 : 성과와 과제

Helen Dwyer-Renaud (Status of Women, 캐나다)

캐나다 감사원(the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에서 행해진 감사결과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성분석(Gender Based Analysis: GBA)을 연방정부 차원까지 확대 강화하여 적용할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의지는 성분석 행동계획 (GBA Action Plan)의 도입으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이 Action Plan의 실행은 책임성 강화, GBA의 실행 강화, 조직 전반에 걸쳐 지속성 향상, 그리고 양성평등을 위한 가시적 결과 표출을 목표로 한다. 본 발표는 성분석 행동계획이 목표하는 핵심요소, 핵심 주체의 역할과 책임, 기대와 의도한 결과를 다룬다.

제2발표

영국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실행과 성과

Judith Squires (University of Bristol)

이 논문은 영국에서의 성 주류화 관행의 발전양상을 개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성 주류화의 의제설정이란 초기 공약에서부터 2006년 성평등 의무(gender equality duty)의 도입과 함께 이루어진 통합주의적 주류화까지를 폭넓게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 평등만을 다루는 사회기반구조 및 절차로부터 멀어져 성 평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평등체계로 나아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성 주류화의 근본적인 잠재력은 실현되고 있는가? 여성주의자들이 초기에 인지했던 것과 같은 이론적 잠재력이 달성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오고 있다.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영국에서의 경험은 법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성평등 지지자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고, 성평등 사회기반시설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해주며 궁극적으로 정책과정을 통해 성평등 관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주류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평등이 평등정책의 핵심목표로 인식되거나 아니면 다른 불평등 영역에 포함되어 비주류화될 것인지의 여부는 계속 논쟁 중이다. 정당, 성평등 전문가들 그리고 법적 평등 의무와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을 묻는 외부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3발표

한국의 성별영향평가와 젠더 거버넌스

김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성별영향평가는 성 주류화 전략의 핵심도구로서 성별통계, 성인지 예산과 함께 2000년 이후에 제도화되었다. 한국은 안정적인 제도화에 기초하여 정부주도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성 주류화 관련 연구에서는 성 주류화 전략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행주체가 공무원 뿐 아니라 젠더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실행과정에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실천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성 주류화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젠더 거버넌스가 왜 필요한지 설명한다. 또한 한국이 지난 5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행하면서 만들어내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성별영향평가는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첫째,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기반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제도화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둘째,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담당 공무원을 위한 성인지 교육이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가 지역개발분야, 교통 분야 등 다양해지면서 일반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넷째,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지침, 안내서 등의 시행도구를 개발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분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이다. 다섯째,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 기관이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이다. 여섯째,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안이 환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 제도발전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몇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의 효율적 관리와 지표개선,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의 개선과 중앙기관 공무원의 교육확대, 성별영향평가 환류를 위한 제도개선과 젠더 거버넌스의 실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별첨 3. 프로그램순서

13:00 - 13:30	등 록	
13:30 - 14:00	개회식 (사 회: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 개회사: 김 태 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축 사: 최 영 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백 희 영 (여성가족부 장관)	
14:00 - 15:30	사회자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사회통합연구실 실장)
	주제 및 발표자	
	주제 1	캐나다 성 분석의 추진체계 Helen Dwyer-Renaud (Gender Analysis Directorate, Status of Women, 캐나 다)
	주제 2	영국의 성 주류화 실행과 성과 Judith Squires(Bristol University 교수, 영국)
	주제 3	한국의 성별영향평가와 젠더 거버넌스 김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30 - 15:50	휴 식	
15:50 - 16:30	지정토론	1) 허라금(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2) 이재인(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3) 신혜수(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
16:30 - 17:00	자유토론	
	사회자	김양희(젠더앤리더십 대표)
17:00 -	폐회사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